

전남광주 취업준비생들, SK하이닉스에 몰렸다

“학력 제한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때 아닌 취업 열기로 달아올랐다.

SK하이닉스의 하반기 기술사무직 신입 채용설명회가 열리면서 수백여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사장 안팎은 이른 시간부터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작무를 살펴보는 청년들로 북적였고, 반도체 현장의 실제 업무부터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기준까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설명회 시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취업준비생부터 대학생, 반도체 관련 직무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나둘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채용 설명회 안내 문구를 다시 확인하거나 친구들과 지원 직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채용설명회에 250여명 참석…취업 열기 후끈

반도체 현장 업무부터 AI 역량까지 관심 집중

눈에 띄었다. 다만 행사장 내부 진입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됐다. 현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의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시키는 등 보안과 행사 운영도 철저하게 관리됐다.

이날 센터에서 열린 SK하이닉스의 ‘2026 하반기 기술사무직 신입 채용설명회’에는 2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과 대구, 청주에 이어 광주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 4개 거점 채용설명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전국 행사에는 약 4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이 모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SK하이닉스 취업을 준비하는 반도체 관련 전공자는 물론 다른 전공을 가진 지역 청년들의 간절함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의 관심

을 끈 부분은 학력 제한 폐지였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지원 자격의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특정 대학을 찾아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 것도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찾기 위한 변화다.

대기업과 첨단산업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야 했던 지역 청년들에게 기업이 직접 찾아온 이날 행사는 지역에도 미래산업 인재가 충분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학력 제한이 폐지된 만큼 전공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행사장 안팎은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반도체 공정과 양산 현장의 업무,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방식, 새로



24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SK하이닉스 채용설명회가 구직자들로 가득 차 있다.

운 채용 절차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대 정모씨는 “SK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막연했다”며 “대기업 채용 설명회가 수도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지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채용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AI 활용 능력을 실제 채용 과정에서

확인한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반나절 심층면접’을 도입한다.

지원자가 면접장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직무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문제 해결형 PT와 심층 인터뷰, 그룹 토론, 비대면 영상 인터뷰 등을 진행한다.

30대 김모씨는 “회사 홈페이지나 취업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찾는 것과 실제 현장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 같다”며 “특히 어떤 역량을 갖춰야 실제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 신입 채용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채용 분야는 설계와 소자, R&D, 공정,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Solution SW·HW, PKG 개발, IT 등이다. 채용 과정은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SKCT 심층검사와 인지검사, Half-Day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호남권 반도체 성공’ 지역사회 역량 모은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범시민 추진체계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투자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경제·노동·행정·교육·연구·언론·시민사회·금융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8명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범시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공감 확산과 인재 양성, 노사 상생, 기반 조성,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 협력, 미래 도약 등 8대 핵심 실천과제가 담겼다.

위원들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인재가 함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투자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및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께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노사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강연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를 지낸 정은승 전남광주반도체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 산업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을 주제로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전력·용수, 인재 등 지역이 보유한 기반 여건을 강조하며 생산과 에너지,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연계한 ‘반도체 트라이앵글’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전남광주의 행정이 기업의 투자 속도보다 늦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전환의 기회를 반드시 성공의 결실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상의, 범시민추진위 출범…각계 200여명 참여
8대 분야 공동선언 채택…양대 노총도 협력 약속

광주상의는 추진위원회를 경제와 산업, 교육, 노동, 시민사회 등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과 지역 기업의 반도체 산업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기업 투

자가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속해서 결집할 방침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다시 오기 힘든 소중한 기회”라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고속, 광주-홍천 운행
내달 1일부터 하루 1회

금호고속(사장 이계영)이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에 운행 중인 광주-원주 노선을 홍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프리미엄 등급 차량으로 하루 1회 운행하며, 광주에서는 오전 08시 35분, 홍천에서는 오후 4시 10분 출발한다.

광주에서 홍천까지 소요시간은 약 4시간 50분이며, 승차권은 “티머니 Go”, ‘고속버스 티머니’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운행구간 확대로 광주에서 홍천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돼 강원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노선 연장을 통해 전남·광주 지역민의 강원권 이동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교통수요를 반영해 보다 편리한 노선망을 구축해 나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062-360-8715)으로 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

삼성, 스마트폰 1위 탈환 전망
올해 출하량 0.8% 증가

삼성전자가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출하량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부품 원가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14% 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약 0.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애플은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에 내준 연간 출하량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의 선방은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지역별 사업 기반, 자체 부품 조달 역량, 탄탄한 통신사·유통망 등이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다만 아이폰18 시리즈의 가격 인상 가능성과 모델별 출시 일정 변화 등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혔다.

애플은 올해 3분기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기 출하량은 수백만 대 수준에 그쳐 전체 출하량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1.4% 추가 감소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찾는다

선제적 대금 조정·조기 지급 기업 우대 등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납품대금에 선제적으로 반영한 기업을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선제적으로 체결·이행한 기업을 발굴해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거나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을 실천한 기업은 심사 과정에서 우대한다.

공모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수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연동계약 체결 비율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납품대금 조정 실적 등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홍보와 제도 안착에 기여한 성과도 평가한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10점이다.

포상 기업에는 단순 표창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지속적인 참여와 산업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또는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공정거래 협약 하도급 분야 이행평가에서 가점 2점도 받을 수 있다. 포상 신청은 오는 10월 8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서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스마트인재개발원, 지역 산업현장 AX 전환 ‘견인’

K-하이테크 플랫폼 활용 실무형 AI 교육 운영
기업·공공기관 재직자 대상…내년 사업 확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재직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산업현장의 AX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K-High Tech Platform·KHP)’ 사업을 통해 지역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형 AI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K-하이테크 플랫폼은 AI와 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업과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한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HD현대삼호와 금호타이어, 대한조선, 현대ENT 등 지역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전남광주 북구청과 해양경찰, 교육지원청, 농업기술원, 여성·육아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형 AI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생성형 AI 기본 활용부터 기획 실무와 업무도우미 활용, 인사이드 도출, 생성형 AI 응용, AI 버전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대상자의 직무와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문서 작성과 정보 탐

색, 아이디어 도출,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재직자 개인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성과가 기업과 기관의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과 조직 차원의 AX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무형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수경 스마트인재개발원장은 “AX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재직자가 AI를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실무형 AI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산업의 AX 전환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